



지구를 지키는 녹색잡지 만발

각종 환경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져

김종우

연합통신 환경담당 기자

〈환경 전문지·잡지현황〉

환경관련 간행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조사한 환경관련 간행물 현황을 보면 일간, 주간, 격주간, 월간, 계간 등을 망라해 줄잡아 60여종을 웃돌고 있다. 이중 절반은 일간 및 주간지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간 및 주간지는 환경관련 정보와 환경오염 현장을 고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형식도 기사체 문장으로 구성돼 있어 환경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고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기철학 지닌 진지한 접근

따라서 환경관련 간행물 중 자기철학과 대안을 갖고 진지하게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월간지, 계간지 등 잡지들이다. 특히 전문성과 함께 환경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성까지 포괄할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는 환경운동연합, 배달녹색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그린스카우트 등 4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거의 환경운동단체로서 역할과 함께 ▲환경 캠페인 ▲환경오염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교육 ▲출판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각자의 환경철학과 지향목표에 따라 조금씩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 차별성은 바로 이들이 펴내고 있는 간행물에서 뚜렷이 드러나며, 환경단체들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환경잡지의 모태는 91년 대구에서 창간된 격월간지 《녹색평론》(발행인 김중철)이다. 《녹색평론》은 녹색환경을 본격적으로 표방했으면서도 환경운동조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환경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순수지라는 데 특징이 있다.

이 잡지는 시, 에세이, 서평 등으로 짜여진 환경 평론서로 내용이 다분히 철학적이지만 쉬운 문장에 글의 향취가 매우 높아 지식층에게 널리 읽힌다. 특히 환경을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소외된 타자들(여성, 소수민족, 인디언)과 그들의 문화(농경생활, 자연생활)에 대한 애정으로 연결짓고 과학문명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는 등 매

우 독특한 시각을 지니고 있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녹색평론》이 발간되고 이어 각종 환경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때는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정치 민주주의에서 환경, 건강 등 사회 복지주의로 이행해간 시점이었다. 이러한 조건 아래 환경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조직됐으며, 이들은 이론적 도구로서 환경관련 간행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중 가장 큰 형님격은 배달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이 91년에 펴낸 소식지 《배달환경》이다. 배달녹색연합은 이듬해 대중들을 위한 《생명나무》라는 월간지를 창간했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93년 《배달환경》에 통합시켰다.

배달녹색연합은 내달부터 《배달환경》은 소식지로 두고 대중을 위한 월간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칭)의 발간을 서두르고 있다. 이 잡지는 '환경운동은 문화운동'이라는 '그린 르네상스(녹색문화론)'를 목표로 생활 속의 환경철학 구현과 조그마한 환경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읽을거리까지 망라

두번째는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이 내고 있는 월간지 《환경운동》이다. 93년 7월에 창간된 이래 현재까지 지령 35호를 내고 있는 《환경운동》은 대중성을 가장 많이 확보한 잡지다. 현재 약 3만부가 발행되고 있으며, 회원용 이외에도 대형서점 등에서 권당 4천2백원에 팔리고 있다.

《환경운동》은 지방조직의 활동상황과 소식, 배달 환경현안에 대한 진단 및 대안제시 등을 주축으로 환경관련 시, 수필, 소설 등 읽을거리를 망라하고 있다. 잡지가 가져야 할 요소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어 95년 3월 창간된 《그린스카우트》는 초·중·고 학생들이 주요 회원인 그린스카우트(사무총장 김재범)에서 내고 있는 잡지다. 《그린스카우트》는 회원 특성상 환경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잡지 내용도 ▲학교와 환경교육 ▲어린이와 환경교육 ▲환경실천 캠페인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린스카우트》는 3만부 가량 발간돼 대형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환경잡지로 자리

신문사명	간별	발행겸 편집인	대표전화	등록일
사회환경신문	주간	김한태	951-5880	'89. 4. 14
산업환경신문	〃	이덕영	616-9676	'87. 10. 4
환경타임즈	〃	최규봉	752-1583	'92. 7. 31
환경경제신문	〃	박희철	749-4252	'88. 9. 15
환경공업신문	〃	채우식	436-8000	'89. 2. 24
새건강신문	〃	이영권	579-0050	'90. 11. 17
화공신문	〃	양승세	631-3611	'87. 7. 10
한국환경신문	〃	박치복	929-3722	'89. 3. 16
교통환경신문	〃	박광훈	792-0566	-
산업교통	〃	이수복	790-3304	'92. 4. 23
중앙환경신문	〃	류정환	326-0161	'92. 10. 27
건설환경	〃		714-5051	-
보사환경	〃		793-6116	-
조선환경	〃	정영표	358-4114	-
보건신문	〃	김찬호	718-7321	'66. 6. 22
매일환경신문	일간	허수남	711-4040	-
일간건설	〃	이준용	547-5081	'63. 3. 2
농수축산신문	〃	강신수	585-0091	'88. 8. 24
일간무역	〃	박용학	551-5483	'64. 1. 1
과학신문	격주간	이기훈	578-7411	'81. 10. 15
세계환경신문	〃	신호철	927-1702	'92. 4. 25
자연환경신문	〃	김기숙	706-0307	'88. 9. 24
환경보전	월간	정수창	753-7669	'79. 3. 12
환경기술정보테크	〃	이효	865-7336	'92. 6. 9
공해대책	〃	백언근	319-1277	-
환경과조경	〃	오휘영	569-9967	'82. 6. 1
지구환경	〃	김상준	999-1366	-
첨단환경기술	〃	이용운	859-6333	-
환경기술	〃	이달우	774-0123	-
그린환경신문	〃	이재학	518-4796	-
수자원환경	〃	서동숙	308-2334	-
환경운동	〃	장을병	735-7000	'93. 8. 19
환경21	〃	박정옥	491-5253	'96. 4. 1
환경과에너지	〃	이연재	797-1113	-
환경관리인	〃	유문하	862-2591	'87. 6. 30
환경매거진	〃	김한태		'94. 9. 17
환경과생명	계간	유치현	785-5800	'94. 3. 18

를 굳게 잡아가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자기 목소리(정신)를 위해 환경잡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환경과 조경》이란 잡지는 스스로의 틀(육체)을 갖추고자 환경단체를 발족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이채롭다. 지난 82년 6월 창간된 월간 《환경과 조경》은 환경과 조경의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전문성이 강한 잡지로 내달 '내달 환경가꾸기 시민의 모임'을 발족한다.

많은 환경잡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더 많은 환경단체들과 환경관련 간행물이 나타나 '백가쟁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환경관련 간행물들이 비슷비슷한 형식과 내용들로 중복돼 양산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들이 차별화된 자기만의 틀과 목소리를 가질 때 우리의 환경이 더욱 개선되며 환경문화도 한 차원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